

“허정무호 황태자는 바로 나”

김보경·구자철·이승렬 등 '젊은 피 3인방' 경쟁 후끈 U-20월드컵 8강 주역...핀란드전서도 그라운드 누벼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험을 쌓게 하고 더 커 나갈 길을 열어주고자 기대 주 한두 명을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어린 선수로서는 귀가 솔깃해질 말이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남아공에 이어 스페인에서 전지훈련을 계속하는 대표팀에는 현재 청소년 대표 출신 ‘3총사’인 미드필더 김보경(홍익대)과 구자철(제주), 공격수 이승렬(서울)이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 쾌거에 목숨을 걸었다. 게다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했던 허

정무 감독의 이들 3인방에 대한 예정은 갈수록 깊어가는 듯하다. 김보경과 이승렬은 지난 9일(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치른 잠비아와 경기전에서 후반 차례로 교체 출전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구자철도 교체 투입됐다.

허 감독은 현재 전후 멤버 중 최상의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지난 18일 핀란드와 친선경기(2-0 승)에서도 이들 세 명을 모두 출전시켰다. 김보경은 당당히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이승렬과 구자철은 후반 중반 이후 그라운드를 밟았다.

20세 이하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구자철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블랙번 로버스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어린 나이에 경기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차세대 중원사령관 감으로 손색없다는 평

가를 받는다.

2008년 K-리그 신인왕 출신 이승렬도 스피드와 돌파력, 득점 감각 등을 무기로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보경이 셋 가운데 조금 더 주목받는 듯하다. 허정무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스피드와 볼 감각이 뛰어난 선수다. 전지훈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보경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내 왔다.

다만 김보경으로서는 핀란드와 경기에서 유럽의 체격 좋은 선수들과 부딪치자 힘이 부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전반 36분 만에 교체돼 아쉬움이 남는다.

김보경은 선수단이 훈련 없이 휴식을 취한 19일 한국 취재진과 대표팀 숙소에서 만난 자리에서 “감독님이 우리에게 ‘어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충분히 믿는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보경은 “월드컵이라는 말이 아직도 경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차세대 중원사령관 감으로 손색없다는 평



나비처럼 날아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2010 SK 핸드볼큰잔치 여자부 결승전 부산건설과 삼척시의 경기에서 부산건설 김은아가 슛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셀틱 간판으로 떴다

구단 소식지 '셀틱 뷰' 표지 장식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기성용(셀틱 FC)이 구단 소식지 표지를 장식했다.

지난 17일 풀커크와의 데뷔전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던 기성용이 20일 발행된 셀틱의 구단 소식지 '셀틱 뷰'의 표지에 등장했다. 표지를 장식한 기성용은 '셀틱 뷰'와의 인터뷰를 통해 셀틱 맨으로 살아가는 소감을 밝혔다.

데뷔전에 만족감을 보인 기성용은 “토니 모블레이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을 때 긴장도 됐지만 그동안 많은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첫 무대만큼 떨리지는 않았”면서 “경기장을 찾아 박수를 보내준 팬들이 인상 깊었고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팬들을 실망 시키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풀커크와의 1-1 무승부에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기성용은 “풀커크는 비록 하위권에



처져있지만 훌륭한 팀이고 좋은 선수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팀이 3-4골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팀 적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성용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동료들과 쉽게 어울리고 있다.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료들이 많아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이해해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예산 928억 승인 축구협 대의원총회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20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0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결산액 629억보다 299억원 정도 늘어난 927억 8천333만원이다.

이 예산에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본선 16강에 올랐을 때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는 배당액 110억원과 스포츠로토 수익금 예상액 292억원이 들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2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FIFA 배당액은 90억원으로 20억원이 감소한다.

스포츠로토 수익금은 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0대 50 비율로 나눌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또 풋살연맹을 올해 상반기 중 출범시키기로 하고 설립인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목포시청 축구단에 3년간 5억 후원”

IBK기업은행 후원 협약

지난해 12월 출범한 목포시청 축구단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3년간 5억원의 후원을 받는다.

목포시는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기에 따라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중현 기업은행부행장과 정종득 목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양측이 합의한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2억원을 후원하고, 향후 2년간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축구단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축구단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는 3월에 개막하는 내셔널리그와 FA컵, 전국실업축구대회 등 중요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목포시청 축구단이 전국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목포가 국제적 축구 메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김정혁시를 사령탑으로 지도자와 선수 등 총 34명의 선수단으로 튼튼한 진영을 갖추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실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이호, UAE 알 아인과 1년 계약

아랍에미리트(UAE)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한 미드필더 이호(26·알 아인)가 입단식과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유럽축구 온라인 매체인 골닷컴은 20일(한국시간) 이호가 알 아인과 1년 계약을 했다며 입단식 소식을 전했다.

이호는 전남 UAE 아부다비의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1년 계약을 한 이호는 이번 2009-2010시즌 활약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옵션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번호 50번을 받은 이호는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팀내 선수 중 최고 수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양서 유소년 풋살대회

제2회 전국 유소년(U-12) 풋살대회가 19일 광양에서 개막됐다.

오는 22일까지 4일동안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며 광주, 서울, 인천 등 전국 10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전국 32개 클럽이 참가한다.

대회는 예선전 조별리그를 거쳐 16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풋살의 저변 확대와 축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광양실내체육관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경기 안내와 음료수를 제공하고, 선수단이 이용하는 숙박·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할 손님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ng47@

스포츠토토

지역	소지자	토/간(㎡)	건평(㎡)	최고가	비고
지리	소지자	274/445	499㎡	499㎡	11억 1천만원
지리	소지자	174/277	119㎡	119㎡	3억 9천만원
지리	소지자	303/556	499㎡	499㎡	2억 9천만원
지리	소지자	857/1442	899㎡	899㎡	3억 9천만원
지리	소지자	2042/2708	1999㎡	1999㎡	8억 9천만원

대표·성 불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총장(비밀) 원우회장
전 호남대학교 명예교수(비밀) 원우회장
전 호남대학교 명예교수(비밀) 원우회장
전 호남대학교 명예교수(비밀) 원우회장
전 호남대학교 명예교수(비밀) 원우회장

해령법률경매 사원 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지자	토/간(㎡)	건평(㎡)	최고가	비고
지리	소지자	297/527	129㎡	7㎡	1197㎡
지리	소지자	186/248	89㎡	499㎡	1197㎡
지리	소지자	415/224	169㎡	427㎡	1197㎡
지리	소지자	1470/273	375㎡	1223㎡	1197㎡
지리	소지자	172/304	33㎡	191㎡	1197㎡
지리	소지자	101/78	15㎡	191㎡	1197㎡
지리	소지자	1878/361	499㎡	299㎡	1197㎡
지리	소지자	372/317	499㎡	299㎡	1197㎡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변이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은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복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가산전환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32부터 매주 화요일(15주)	(주)14-17시 (하)19-22시	150000원	230-770-3
평생교육원	관상학 심급	35부터 매주 금요일(15주)	(하)19-22시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하)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심급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하)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1.29까지 등록시 해당수강료 10%감면
정기등록 2.1-2.19까지, 동강대 정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공휴일 방문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지원 6% (1년 기저 5년 중금리 특혜)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차 사용합니다

- 비 전기료 약 5,000원 정도도 부담이 적음
- 충전식 배터리로 사용이 편리하고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저리 융통유저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거래보증, 1년 기저 5년 상환, 연리 3%
- 중저리 408만원(1차재당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급** 가능

한라셀텍(주) H.P 010-9468-3282